

광주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중단

광주시에 청소년들의 학습·여가 활동 공간과 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 일곡지구에 건립 중인 시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불법 매립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층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대체 부지 확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와 관련, 건축·전기통신·건축기계·소방 등 4개 분야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터파기와 토사 반출, 부지 조성에서 이어 파일공사 도중 지하 7~10m 지점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층이 부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축 현장은 공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건축 부지에는 공사용 파일이 곳곳에 깔려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파일공사나 터파기 과정에서 쓰레기층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지반조사 결과 건축 예정부지 전반에 걸쳐 쓰레기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곡 청소년문화의집은 일곡 제3 근린공원 내 9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당초 2019년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당초 착공일(7월)보다 3개월 늦게 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5%에 불과하다. 골조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비는 지난해 6억7000만 원이 1차 투입됐고, 올해 15억7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시는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와 관할 자치구인 북구청을 비롯, 위탁운영기관인 광주YMCA, 주민공동체, 의회 등과 조만간 공동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일곡지구 우선으로 대체부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건물 중 활용 가능한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23일 관련 업체들에 공사 중지 통보를 했음에도 시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에는 이달 17일에야 관련 사실을 공식 보고해 "늦장 통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복구 각화동, 일곡동, 용봉동, 남구 봉선동 등 모

지하 파일공사 도중 불법 매립 추정 쓰레기층 발견 공정률 5%, 사업 지연...쉬쉬하다 의회 등장 보고

두 4곳에 82여원을 들여 권역별 시립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중이다. 이 중 각화는 가장 먼저 완공됐고

용봉과 봉선 청소년문화의집도 각각 12월말,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커뮤니티 홀과 북카페, 맨스 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등이 설비에 반영됐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만큼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스프링클러, 불연 자재 등이 사용된다.

서은홍 기자



이쿠아리움도 크리스마스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이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신타와 루돌프, 인어로 분장한 이쿠아리스트들이 크리스마스 특별 수중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함평군 35억 추사작품 어찌나 '위작 논란·박물관 건립 무산'

80점 중 32점 위작 논란...박물관 건립도 좌초

함평군이 추사김정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35억에 구입했던 추사작품 일부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박물관 건립도 무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교육감과 함평군수가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포기해 막대한 형세만 남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추사작품 소장자로부터 구입하고 기증 받은 작품 80점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32점이 위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추사 작품을 기증했던 소장자 측은 이미 3년 전 전문가들을 통해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으며 위작 관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재감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추사김정희박물관 건립 사업까지 무산되면서 지난해 35억 원을 주고 구입한 추사작품이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군은 지난 2015년 함평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

만 장만제 전남도교육감과 안병호 함평군수가 교육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로 장식용 전남도교육감과 이윤행 함평군수가 취임하면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추사박물관 대신 전남교육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전남지역 일선 시·군을 상대로 사업제안을 공모했다.

제안서를 낸 자단체는 공모를 계도 함평군이 유일한 상대지만 함

평군이 사업 적격자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함평군은 교육박물관 전시공간 중 한 곳에 추사작품 전시를 바라보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위작 논란이 있는 데다 전남교육박물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면 선을 긋고 있다. 추사작품 전시와 활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함평군은 작품을 다시 물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 함평군의 제안서를 토대로 심의를 한 뒤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광주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

광주시교육청이 18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와 협상을 갖고 정액급식비수당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직종의 기본급체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상 합의에는 조리사, 과학실사, 방과후전담, 초등스포츠클럽, 환경미화원 등 51개 직종 3986명이 적용된다.

조인호 기자

美여성, 두 딸 차에 방치하고 죽게 해 40년형

밤새 파티를 즐기다가 차에 방치한 1, 2살 된 두 딸을 숨지게 한 미국 여성이 40년 형을 선고 받았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텍사스 주 커운티의 키스 윌리엄 판사가 지난 12일 21세 여성 어머니 호킨스에게 4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두 소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보다 카운티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더 잘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당시 19세였던 호킨스는 파티를 마친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남겨져 있던 차로 돌아갔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텍사스 경찰에 따르면 두 자매는 뜨거운 여름날 차안에서 최소 15시간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킨스가 경찰은 당시 아이들을 발견한 호킨스가 문제가 커질 것을 원치 않아 병원에 가기를 꺼려했으며, 열사병 등 급성질환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다고 밝혔다. 호킨스는 결국 병원에 갔지만, 의료진에게 두 딸이 강가에서 꽃 냄새를 맡고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호킨스는 지난 9월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신청했지만, 텍사스 검찰은 아동 유기 및 아동 생명 위협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차량 내 아동유기방지 운동을 해온 '키즈앤카(Kids and Cars)'는 2013년 이후 231명의 어린이들이 차량에 유기되어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국인 남성, 대만서 패러글라이딩 중 추락사

대만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연합보(聯合報)가 18일 보도했다.

대만에 따르면 올해 45세인 문모 씨가 전날 오후 3시에 대만 남부인 평등(屏東) 산디먼(三地門)항에 있는 싸이저(賽嘉)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풍향 변화 때문에 10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문씨는 다른 5명의 한국인 관광객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에 나선지 10~20분 만에 갑작스레 낙하산과 같이 떨어졌다.

구급대가 출동해 오후 4시에 문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문씨는 부인 등 8명과 대만을 찾았다가 번을 당했다. 문씨를 포함한 일행 6명은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거의 매년 겨울 싸이저 활공장에 왔다.

그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제조정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활공장 운영자인 쉐웨이룬(蘇偉倫)씨는 풍동 주변의 겨울철 날씨가 안정됐기 때문에 해마다 1000명 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고 현지에서 온다고 전했다.

숨진 문씨는 '고급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소지했으며 적어도 5년간 1000시간 이상을 탔다고 일행은 밝혔다.

쉐씨는 사고 당일 바람이 적당히 불어 문씨가 바로 산 주변에 도달했는데 절벽에 걸려, 바람이 끊겨 낙하산이 떨어진 접이면서 보조 낙하산을 펼쳐려도 없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운용 중인 싸이저 활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한국인 이모씨가 비행 도중 캐나디언과 공중에서 부딪힌 후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작년 1월에는 일본인이 숨지기도 했다.

英호텔, 노숙인 자선행사 고객 예약 취소 논란

영국 소재 한 호텔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숙인 자선행사를 하려던 고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쉐필드 지방 소재 브리타니아 로열 호텔은 노숙인 대상 자선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크리스마스 연휴(24,25일) 기간 14개의 트윈객실 예약을 지난 15일 일방 취소했다.

일방 취소를 당한 고객은 이른바 '레이즈 더 루프(Raise the Roof)' 크라우딩펀딩 창립자 칼 심프슨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1092파운드(약 155만원) 기금의 계약금을 호텔에 지급했다.

그러나 호텔은 갑작스레 예약을 일방 취소하며 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 숙박 손님을 받지 시작했다. 심프슨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번 일은 차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프슨의 페이스북은 즉각 온라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에선 브리타니아 로열 호텔에 대한 비난과 함께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호텔이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심프슨은 아직 호텔 측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적요소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